

하나됨과 나눔

“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

〈 시편 119편 35절 〉

-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부활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순절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 사랑방공동체 제 7차 총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한공협 서울경기강원 네트워크 모임이 23일(월) 한신대에서 모입니다.
- 교육비전(기학연) 총회가 23일(월) 경신고 예배실에서 모입니다.
-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기대연) 총회가 26일(목) 경신고 예배실에서 모입니다.
- 공동체학교 입학식 및 개학식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꾸러기학교 4일(목) 어린이학교 3일(화) 멋쟁이학교 1일(일)
- 늘푸른사랑방 공동체생활이 22일(일)~ 23일(월)에 사랑방공동체에서 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정낙귀 집사 · 정혜정 권사 가정 (감사)  
허철영 집사 · 강춘자 권사 가정 (생일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석용범 · 박영선 집사 가정 (결혼 기념 감사)

신협(현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3 - 8 호

2026년 2월 22일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설날을 앞두고서

명절(名節). 민족대백과 사전에 의하면, 오랜 관습에 따라 해마다 일정하게 지켜 즐기는 날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계절에 따라 좋은 날을 택하여 여러 가지 행사를 거행하였는데, 이것이 명절이 되었다는 것이죠. 명절 중에는 정월의 설과 대보름, 2월 한식, 4월 초파일, 5월 단오, 6월 유두, 7월 백중, 8월 추석, 11월 동지도 있습니다. 지금은 잘 지키지 않아서 이름마저 생소한 명절들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은 설과 추석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명절이 그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옮겨가면서 생긴 사회/문화적 변화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설날은 새해의 첫날로서 의미가 큼니다. 추원보본(追遠報本 : 조상의 덕을 추모하며 근본을 잊지 않고 보답함)의 뜻으로 차례를 지냈으며, 차례 뒤에는 어른들께 세배와 성모를 하였습니다. 한해의 운수를 점쳐보거나, 태평과 풍년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맛있는 설 음식들은 이러한 의미 아래에서 준비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시대가 변해가면서 평안과 안녕을 비는 마음을 담아 아이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세뱃돈을 주게 되었지요.

이처럼 설날은 긴 역사와 다양한 의미를 담은 날이기에 연휴로 지정되어 속칭 '빨간 날'로 즐기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에게겐 휴식과 거리가 먼 연휴이기도 합니다. 먼 목적지와 엄청난 교통 혼잡, 수많은 종류와 양의 설 음식, 다양하게 얽혀있는 인간관계 등등. 그 외 온갖 수고와 스트레스가 집중적으로 몰아치다 보니, 이 기간에 나타나는 신체적/심리적 증상에 대한 명칭도 있습니다. 바로 "명절 증후군"입니다.

병명조차 확립되어 있지 않은, 일부만의 사회문화적 현상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는 그 위력이 대단합니다. 명절 이후의 지나친 우울감, 분노, 허무감 등으로 인한 심리상담의 사례가 급증하고, 설과 추석이 있는 달과 그 다음 달 이혼 접수와 가정폭력 신고가 평균 15%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이 명절

레스로 인해 갈등을 겪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 간의 공동체성을 이루고자 하는 날인데, 오히려 해치는 날이 되는 아이러니함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가족만큼 서로 닮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유전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피로 묶인 관계이기에, 가족은 조건 없는 사랑과 신뢰의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가족들이 격변의 사회 속에서 허덕이면서 점차 여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 몰리게 될 때, 사람은 평소 하지 않았던 생각이나 감정을 가질 수 있고, 더욱이 그걸 잠재울 자제력도 잃을 수 있습니다. 사랑과 신뢰가 미움과 분노로 변하거나,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가치관의 어긋남이 나와 나의 존재를 용납하지 않는 싸움으로 커지기도 합니다. 사랑과 신뢰로 시작되어 만들어진 가정 속에서 이런 아픔은 건들기 어려운 쓰라림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웃과 형제자매들과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같은 처지로서, 서로서로 남이 알지 못하는 힘겨움이나 연약함이 있음을 유념하고 오히려 위로해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가족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또한 뺄는 한 마디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서로의 얼굴을 떠올리며 살아갈 힘도 받는, 가깝고도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실수나 오해, 잘못과 상처가 있었다 하더라도 개선의 여지는 언제나 있습니다. 형제자매로 불렀던 제자들에게서 배신당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하심으로써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마음을 헤아리시고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죄책감과 깨어지고 멀어진 관계는 그분의 용서와 당부로 이전보다도 굳게 세워졌습니다.

생을 누릴 수 있도록 육체적으로 가족을 선물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를 가족처럼 여겨주시고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바쁘고 수고로움 속에서 명절증후군을 앓고 있는 가깝고 먼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새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어진 전도사

한주간 말씀

“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  
 <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559, 435 / 337

기도 :

성경 : 사도행전 7장-8장 1절

제목 : 스테반의 고발과 순교

1. 내용: 스테반의 설교와 순교 (What)

<문단구분>

1~8절 <아브라함의 이야기>

9~16절 <요셉의 이야기>

17~38절 <모세의 이야기>

39~43절 <이스라엘의 반역>

44~50절 <다윗과 증거의 장막>

51~8장 1절 <스테반의 죽음>

2. 의미: 복음과 진리가 배척을 받다 (Why)

- 1) 진리를 거스르는 일에 열심인 사람들이 있다.
- 2) 진리에 대한 거부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된다.
- 3) 진리는 언제나 악을 고발한다.

3. 적용: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자. (How)

- 1)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준비하자.
- 2) 사람의 기대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자.

적용: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는 믿음을 갖자.

봄 학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긴 시간 이어졌던 학교생활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마음이 한없이 가벼워졌다. 며칠 전, 나는 나 자신에게 줄 작은 선물을 온라인으로 주문해 두었고, 그것이 도착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박스를 뜯고, 오랫동안 기다려 온 그 선물을 손에 쥐고 웃고 있을 나의 모습을 여러 번 그려 보았다. 그 상상만으로도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하지만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 엄마는 도착한 택배가 없다고 말했다. 배송 조회에는 분명히 '배송 완료'라고 적혀 있었지만, 정작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내일 오겠지'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넘겼다. 다음 날 아침, 문을 열고 나가 확인해 보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혹시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 가져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마음을 어지럽혔다. 초조함과 허탈함이 점점 커지다가, 결국 나는 고객센터에 다소 거친 말로 문의를 남기고 말았다.

그날 밤,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간이었다.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있던 나를 누나가 조용히 불렀다. 거실 식탁 위에는 촛불이 켜진 케이크와 함께 커다란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생일 축하 노래가 흐르는 순간, 나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 사라진 줄 알았던 택배는 사실 엄마와 누나가 내 생일을 위해 몰래 숨겨 두었던 선물이었다. 그 순간, 마음 한쪽이 따뜻하게 녹아내리면서도, 조금 전까지 화를 내던 내 모습이 떠올라 얼굴이 붉어졌다. 서둘러 고객센터에 다시 접속해 사과의 글을 남겼다. 작은 오해 하나가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될 줄은 몰랐다.

그날 나는 여러 개의 선물을 받았다. 내가 스스로 준비한 선물, 엄마의 정성이 담긴 선물, 누나가 고른 후드티, 그리고 아빠가 직접 써 주신 편지까지. 하나하나를 받아 들며, 그날이 얼마나 특별한 하루였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지호 형이 준, 진지한 표정의 낯선 얼굴이 새겨진 안경 거치대를 볼 때마다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인스타그램 열어 보니 선배들이 남긴 축하 메시지들이 가득했고, 그 마음들이 고마워 괜히 조금 축스럽기도 했다.

문득 생각해 보니, 이 공동체에 온 지도 벌써 삼 년이 되었다. 그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수없이 많은 순간을 지나오며, 내 삶에는 어느새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오래오래 기억하게 될 것이다.

푸른꿈사랑방 화진지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태일 목사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이사야서 55 : 6-7  
25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로마서 8 : 1-2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254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 철없는 제자들의 잘못된 요구 ” 정태일 목사

마가복음 10 : 35 - 45  
407

설교자  
새작사랑방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433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288(3)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박태규 전향옥 / 봉헌위원 : 윤호중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에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이홍인 정아인

예 배

## 공동기도문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힘이 많은 저희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성숙하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 철없는 제자들의 잘못된 요구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 야고보와 요한이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37> 요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38> 말씀하시며 섬기는 사람, <43> 종이 되어야 한다. <44>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잘못된 요구. 제자들의 요구는 세 가지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여 예수님을 지상 나라의 왕으로 기대하며 세속적인 것을 구했고, 제자도를 몰라 십자가를 따르지 않고 고난을 피하는 길을 구하였으며,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여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철없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세 가지를 돌아보고 회개하십시오. 사순절은 회개의 기간입니다.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의 잘못된 요구를 생각하며, 이 기간에 한 가지라도 돌이키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세상의 것을 구하며 살았는가? 고난을 회피하는 삶을 살았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삶을 살았는가?

~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정혜정 권사

##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 꾸러기학교

설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자주 보지 못한 가족들을 만나 서로 새해 인사를 나누며 서로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설명절의 모습이 다양해 졌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나누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차가 아무리 막혀도 모든 걸 뚫고 가는 설 명절은 아이들이 사랑과 이쁨을 듬뿍 받는 시간입니다. 꾸러기들도 아주 멋진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봄 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2026년 새 학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학생 수도 바뀌고, 올해는 여러 가지로 새로운 모습으로 생활을 할 것 같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 작년보다 아기자기한 생활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한 명, 한 명 모두 별처럼 빛나는 친구들이라 친구들이 올해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얼마나 멋지게 성장할지 기대가 됩니다.

올해는 오리엔테이션이 따로 없게 되었습니다. 신입생이 없어서 기존에 계신 부모님들과 올해도 힘차게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숫자는 줄었지만 서로 더 끈끈하게 모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숫자를 넘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알려주는 교육선교의 소명을 굳게 붙들고, 감사한 마음으로 올해도 지내려고 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교사 : 이어람 >

### 어린이학교

포근포근한 날이 새봄의 기대를 듬뿍 담고 있습니다. 정말 입학식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어린이 친구와 편입학할 친구들이 많이 기다려

배움과 가르침

집니다. 새학년에 무엇이 필요한, 부모님들의 학교 참여 안내, 학사력 등을 안내하며 부모님들과 OT를 하였습니다. 편입학하는 부모님들은 초롱초롱한 눈으로 들으시면 메모를 하셨고 재학생 부모님들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다짐의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새롭게 뽐히신 엄마 아빠 회장님 이하 임원 부모님의 활약은 그날부터 대단했습니다. 간식으로 샌드위치를 호텔식으로 만드셨더라구요 ㅋㅋ.

교사소개를 할 때 격려의 박수를 많이 보내주셔서 교사에게 힘이 되었고 부모님들이 학교를 만나 입학하게 된 소개 속에 하나님이 보여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날로 성큼성큼 가보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 교사 : 하경임 >

### 멋쟁이학교

봄학기도, 졸업식도 마친 멋쟁이학교는 시끌시끌했던 것이 거짓말 같이 조용해졌습니다. 날씨는 더욱 많이 풀려서 봄학기 내내 꿈쩍도 않던 얼음들이 녹아서 땅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설 연휴를 기다리던 멋쟁이들은 여러 가지 기대와 먼 길 떠나는 복잡한 심경을 안고 헤어졌습니다. 설날만큼은 가족 간의 시간을 보내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심심했던지, 어떤 멋쟁이는 가만히 축구공을 차려 학교로 찾아오기도 했답니다.

토요일에는 학부모총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부모님께서 모여서 2026년을 위해 논의하는 장이었습니다. 함께 하는 모습을 보니 참 든든하고, 멋쟁이학교가 이번에도 행복한 한 해를 보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개학 전까지 좋은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 교사 : 이어진 >

## 이어진 만남

매주 금요일 오후, 나는 정기적으로 온라인 성경 모임에 참여한다. 이 모임은 교수님을 포함하여 다섯 명이며, 지금은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만 같은 시간에 다시 만난다. 삼십 년 전 우리는 교수님의 댁에 모여 말씀을 배우고 함께 식사하며 교제했다. 졸업 후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었고, 결혼과 직장을 거치며 서로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되었다. 나와 남편 또한 그 캠퍼스 성경 모임에서 만나 결혼하게 되었기에, 이 모임은 우리 가정의 시작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교수님께서는 중국에서 삼십오 년, 태국 치앙마이에서 팔 년을 가르치신 후 지금은 한국에 살고 계신다. 얼마 전 교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 함께 성경을 공부하자고 제안하셨고, 삼십 년이 지났지만 서로의 모습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교수님께서는 여전히 따뜻하고 단단한 믿음의 스승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신다. 교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시며, 또한 부모로서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강조하신다.

공동체에 다시 온 지도 벌써 삼 년이 되었다. 이곳은 아이 셋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며, 우리 가정의 시작이 담긴 장소이다. 시대와 환경은 많이 변했지만 공동체 안의 사랑과 연결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가족처럼 돌보며, 신앙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아이들도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믿음 속에 자라고 있다. 그들은 말씀과 기도를 자연스럽게 접하며, 서로를 형제자매처럼 여기며 성장한다. 앞으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되더라도, 이곳에서 시작된 믿음의 뿌리와 관계는 그들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우리 공동체는 우리뿐 아니라 아이들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 주고, 앞으로의 신앙의 길을 준비하게 하는 귀한 장이다. 공동체 모든 아이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고, 평생 함께 걸어갈 영적인 친구들을 만나 믿음 안에서 서로를 세우며 살아가기를 기도한다.

그루터기 사랑방 저경하 사모

##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이어진 전도사

찬 송 : 559장, 310장

성 경 :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 씬 : 가족을 돌보는 의무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분쟁의 확대가 줄어들도록>  
미국-이란의 핵무기 협상이 진행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동에 항공모함을 비롯한 많은 수의 군사들이 배치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유혈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사순절을 맞이한 교회를 위해>  
'재의 수요일'을 비롯하여 사순절 기간동안,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신앙공동체가 이 절기의 의미를 묵상하며 지내기를.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지체들을 위한 기도>
  - 1) 설날 연휴 오가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
  - 2) 부친상을 당한 박태규 집사님 가정을 위해
  - 3) 사랑방공동체 총회를 위해

## <생활공동체 소식>

설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먼 길을 다녀온 식구들도 있고, 집에서 많은 친지들과 명절을 보낸 식구들도 있습니다.

명절기간 중에 부친상을 당한 가정이 있어 안타깝기도 했지만, 함께 기도하며 깊은 위로를 전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명절의 여운은 뒤로 하고 이제 여러 일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장영미 전도사 >